

한국수어 반의어 분석

고인경* · 조희경** · 현영옥*** · 이숙기****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윤병천*****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 요약 》

본 연구는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형태와 개념, 실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수어사전의 12,547개의 어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반의어 쌍은 모두 589쌍으로, 11가지 형태소 중 1형태소:1형태소 관계가 279쌍으로 가장 많았으며 2형태소:2형태소 관계가 172쌍으로, 반의어 쌍은 동일한 형태소 관계에서 주로 나타났다. 분야는 일반>범위>사회>전문 순이었고, 품사는 명사>동사>형용사>대명사>부사>조사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개념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모순적>반대적>단계적>상대적>상관적>역관계적 개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별도>가역>부정>대칭>뿌리치기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하지만 실제로 농인이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적 요인과 맥락을 이해하고 수어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활용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반의어 쌍, 반의관계, 가역성, 뿌리치기, 부정형태소

* 제1저자,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kohinkyung@gmail.com)

**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chohik@hanmail.net)

***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ok-9876@hanmail.net)

****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bluemi20@hanmail.net)

***** 교신저자,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yבח5778@kornu.ac.kr)

1.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어휘력은 언어 사용 능력의 기반이 되며, 그 중 어휘의 정확한 의미 파악은 의미 관계에 따른 어휘 확장과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 오류 유형 조사(조철현, 2002)’에 따르면 어휘 오류가 28.3%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어휘의 의미 관계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의미적 오류가 30%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반의어(反意語, antonym)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며, 어휘 학습의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신희삼(2014)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에서 반의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은 근거가 있고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로, 조현용(2010)은 단어 연상 실험에서 절반 이상이 반의어를 연상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어휘교육에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어휘를 머릿속에 저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휘 제시에 있어서 반의어 쌍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의어는 문장 속에서 함께 사용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이광호, 2009; 임채훈,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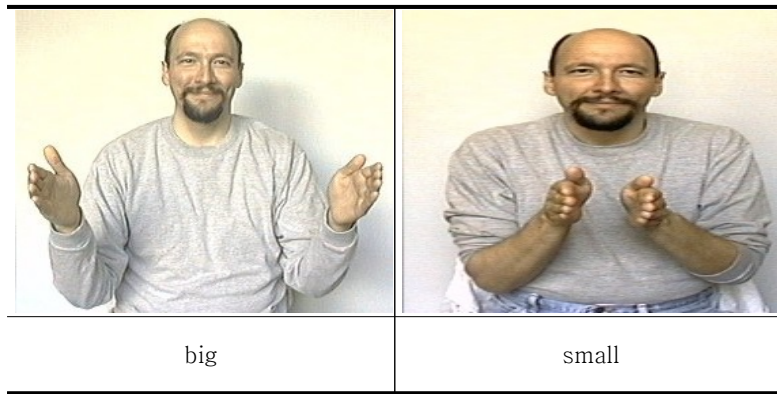
위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언어적 체계를 가진 한국수어에서도 어휘 의미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의사소통에서 단순히 어휘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어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야 원활히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은 더 나아가 수어통역에서도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어휘 의미 관계를 알 수 있는 한국수어 반의어 쌍(antonym pairs)은 학습자들의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 연구에서 반의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학술지와 연구지를 통한 한국수어 연구의 시작은 1986년부터(윤병천, 2005),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태론과 통사론, 의미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반의어와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수어 관련 서적으로는 원성옥(2013)의 ‘수화’에서 시각언어의 특성 중 ‘가역성’을 예시 단어와 함께 설명하면서 반의어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였을 뿐, 한국수어에서의 반의어 쌍에 대한 유형이나 실현 특징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해외 연구로는 Charles, Reed, and Derryberry(1994)는 미국수어의 반의어 쌍을 모순적 반의어(direct antonym)와 반대적 반의어(indirect antonym)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수어 관련 서적으로는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2011)에서

단계적 반의어(gradable antonym)를 추가하여 소개하면서, 음성언어와는 다르게 시각언어인 미국수어에서는 반의어 실현 시 가역성과 뿌리치기의 특성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한 예는 <표 1>, <표 2>와 같다. 또한 Novogrodshy, R., Caldwell-Harris, C. 외 2인(2014)은 미국수어 반의어 쌍에 대한 이해가 영어 학습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반의어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1> 미국수어 반의어 쌍 예시: 가역성



<표 2> 미국수어 반의어 쌍 예시: 뿌리치기



한국어에서는 반의어의 개념이 많은 문헌들에서 정의되고 논의되어 왔고, 한국어의 반의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손남익, 2006). 또한 반의어를 활용한 교육적 활용 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송지현(2014), 이민우(2012), 정영복(2011), 조은혜, 최경숙(2008)의 연구가 있다. 이는 반의어를 통하여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능력을 신장하도록 잘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언어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인정되었으며, 더욱 활발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수어도 반의어 쌍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한국수어 학습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심성에는 무엇인가를 이분화(dichotomy)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심리활동으로 반의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김중도, 1998). 그러나 반의어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의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며, 또 전통적인 어휘론적 정의와 현대적인 의미론적 정의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염광호, 1997). 본 연구에서는 김중도(1998)와 염광호(1997)의 반의어 정의를 참고하여, 두 개의 단어가 모두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한 자질만이 상반 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중의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은 두 단어를 반의어라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형태론적 분석을 통해 형태와 개념, 실현 특성을 밝혀, 한국수어의 효과적인 학습과 효율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2. 연구 문제

- 1)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형태와 분야, 품사별 빈도는 어떠한가?
- 2)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개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3)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은 어떠한가?

3. 연구 제한점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에서는 2016년 4월 19일까지 12,547개의 어휘를 열람 할 수 있었고, 2016년 4월 20일 이후로 전문용어 수어 어휘가 포함되어 현재 23,790개의 어휘를 열람할 수 있다. 한국수어사전이 업데이트 된 시점은 본 연구의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또한 23,790개의 어휘에도 빠진 한국수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모든 한국수어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견되지 않은 반의어 쌍의 형태와 개념, 실현 특성이 더 있을 수 있다.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한국수어 반의어 분석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의 12,547개의 어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수어사전 어휘

번호	구분	어휘 수(개)
1	ㄱ	2,014
2	ㄴ	526
3	ㄷ	868
4	ㄹ	54
5	ㅁ	944
6	ㅂ	1,100
7	ㅅ	1,537
8	ㅇ	1,794
9	ㅈ	1,352
10	ㅊ	613
11	ㅋ	129
12	ㅌ	272
13	ㅍ	368
14	ㅎ	976
총 계		12,547

2. 연구 도구

연구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2010’을 사용하여 전사와 분석을 하였다. 전사와 분석에 참여한 연구자는 한국수어를 우선하여 습득하였으며, 현재에도 일상 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다. 강의 및 통역 등 10년 이상의 수어 관련 전문 경력이 있다. 절반 이상이 선천성 농인이며, 농학교를 졸업하고 농가족과 농사회

4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3호)

속에서 살고 있다는 배경이 한국수어 반의어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에 대한 기초 정보는 <표 4>와 같다.

<표 4> 전사와 분석에 참여한 연구자 기초 정보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선천성 유무	농학교 유무	농가족 유무	전문 경력
1	여	30대	경기	X	X	○	10년 이상
2	여	30대	서울	○	○	X	15년 이상
3	여	30대	서울	X	○	○	15년 이상
4	여	40대	서울	○	○	○	15년 이상

분석대상의 적절성과 전사 및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받기 위하여, 전사와 분석을 시작하기 전과 완료한 후, 각 한차례씩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4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검토자에 대한 기초 정보는 <표 5>와 같다.

<표 5> 분석대상 적절성 검증을 한 농인의 기초 정보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선천성 유무	농학교 유무	농가족 유무
1	여	30대	서울	○	○	○
2	남	40대	서울	○	○	○
3	여	50대	경기	○	○	○
4	남	60대	경기	○	○	○

요청한 검토 사항으로는 전사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유용한지, 수록된 한국수어의 쓰임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답변으로는 실제 쓰이는 한국수어가 아닌 단어가 다소 보이기는 하나 반의어 쌍에서 그 빈도가 어떠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며, 반의어 쌍을 추출해내기 위한 분석 자료로 한국수어사전을 제외하여 추천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전사와 분석을 완료한 뒤에는 전사와 분석에 오류가 없는지, 분석에서 수정이나 첨가 혹은 삭제해야 할 개념이나 특성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전사 결과물 검토에서는, 한국수어 전사 시 사용한 한국어 표기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요구가 있었다. 한국수어사전의 복합어에 대한 설명은 주로 [단일어+단일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간혹 서술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판단하여 핵심 단어로 표기하였다. 검토자의 확인 및 수정 요구는 핵심 단어에 대한 것으로, 연구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반의어 쌍의 형태와 개념, 실현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물 검토에서는

모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분석을 마친 후에는, 반의어 쌍은 동일 언어사회 안에서 공인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농사회의 구성원 농인 남녀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반의어 쌍에서 앞 단어를 한국수어로 물으면, 실험대상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반의어를 한국수어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5명에게 실시하였다. 교차하여, 연구자가 반의어 쌍의 뒤 단어를 한국수어로 물어 대답을 받는 형식은 또 다른 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실험 대상자에 대한 기초 정보는 <표 6>과 같다.

<표 6> 객관성 공인을 위한 농인 조사 대상자의 기초 정보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선천성 유무	농학교 유무	농가족 유무
1	남	30대	서울	○	○	X
2	남	30대	서울	○	○	○
3	남	40대	서울	○	○	○
4	남	40대	서울	○	○	○
5	남	50대	서울	○	○	○
6	여	30대	서울	○	○	X
7	여	30대	서울	○	○	○
8	여	40대	서울	○	○	○
9	여	40대	서울	○	○	○
10	여	50대	서울	○	○	○

3. 자료 분석 방법

1) 분석 기준

반의어 쌍의 형태와 개념, 실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의어 쌍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어 반의어를 고찰한 김종도(1998), 염광호(1997), 임지룡(1989), 전수태(1992), 정인수(1985)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반의어 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1) 동질성(同質性) 중 하나인 공존쌍으로, 한 언어와 사회 안에서 동시연상이 가능해야 한다.

(예) 위-아래, 낭비-절약, 죽다-살다, 하늘-땅

- (2) 동질성에서 또 다른 하나인 동위성으로, 하나의 상위개념에 묶여야 한다.
(예) 빨강-파랑(색상), 아들-딸(자녀), 봄-가을(계절), 달다-쓰다(맛)
- (3) 동질성 중 하나로, 반의어 쌍의 단어 형태가 동일해야 한다.
(예) 남쪽-북쪽나라(X), 연분홍-연분홍빛(X)
- (4) 이질성(異質性) 중 하나인 배타성으로, 동위의 공존쌍의 단어들은 서로 의미하는 부분이 조금도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예) 책-책상('책'의 의미를 공통으로 포함하므로 불가),
초여름-여름('여름'의 의미를 공통으로 포함하므로 불가)
- (5) 이질성에서 또 다른 하나인 상반성으로, 시간적, 방향적, 위치적 등으로 뜻이 서로 맞서야 한다.
(예) 올벼-늦벼, 낮차-밤차, 남향-북향, 앞마을-뒤마을
- (6)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파생어와 복합어, 동음 다의어에서도 반의어 쌍을 인정 할 수 있다.
(예) 보름달-반달, 조간신문-석간신문, 서다-가다, 서다-무디다,
서다-쓰러지다

2)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어사전의 한국수어를 엑셀 2010에 한국어로 전사하였다. 한국어 반의어 쌍과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나란히 묶어 표기하였으며, 한국수어는 같으나 한국어 표제어가 다양한 경우 한 쪽에 모아 기록하였고, 반의어 쌍 한 개로 계산하였다. 또한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형태소, 분야, 품사, 개념, 실현 특성을 분석하여 반의어 쌍과 나란히 입력하였다. 반의어 쌍은 무겁거나 크거나 긴 것과 같이 단위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남성 다음에 여성, 긍정에서 부정 등의 순서로 짝지어 입력하였다. 자료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예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의 서술에서 한국어 반의어 쌍을 표현 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 ')를 사용하여 '좋다-싫다'로,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표기 할 때에는 사각괄호([])를 사용하여 [좋다-싫다]와 같이 표기하였다.

<표 7> 한국수어 반의어 쌍 전사 및 분석 틀

번호	한국어 공통 표제어	반의어 쌍				실제 수어
		한국어		한국수어		
1		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뿌리치기	
2	온전, 완전	완성	미완성	완전+끝	완전+아직	[끝] 생략
3		저명	무명	유명+이름	이름+없다(틱)	
4	부르다/굽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5	서방/부인	남편	아내	남편	아내	
:						

형태소	분야	품사	개념	실현 특성
1형태소 : 1형태소	기타	명사	모순적 개념	뿌리치기
2형태소 : 2형태소	기타	명사	모순적 개념	부정표현
2형태소 : 2형태소	기타	명사	모순적 개념	부정표현
1형태소 : 1형태소	기타	동사	반대적 개념	가역성
1형태소 : 1형태소	가족	명사	상관적 개념	별도어휘

3)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을 위하여 한국수어 12,547개의 단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뒤, 선행연구를 고찰을 통해 분석 기준과 자료 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전사와 분석을 하였다. 분석 기준 마련을 위해 농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수어 관련 일을 한 농인 3명과 농부모의 농자녀인 수어통역사 1명, 한국수화사전편찬에 참여한 수어연구 경력 20년 이상의 연구자 등 공동연구자 5명과 다섯 차례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한국수어 400단어를 대상으로 예비 분석하였다.

논의 된 분석 기준에 따라 반의어 쌍을 추출하고, 반의어 쌍에서 상반되는 자질을 분석하여 6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참고하여 고찰하였다. 분석대상인 한국수어 단어의 수가 상당하였기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교차 검토를 하였다. 예를 들면 각자가 맡은 자음에 속하는 반의어 쌍 추출 후 취합한 데이터 파일에 [전쟁-평화] 또는 [평화-전쟁]과 같이 이중 기록되어 계산될 우려가 있어 중복 교차 검토가 필요하였다. 또한 반의어 쌍의 형태소, 분야, 품사, 개념, 실현 특성 분석에서 연구자간에 고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연구자간의 교차 검토 후 필요시 협의 과정을 갖았다.







50회 이상의 검토 과정을 통해 얻은 반의어 쌍은 사회적·심리적으로 공인된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농인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형태와 분야, 품사별 빈도

한국수어로 동시 연상이 가능하며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묶일 수 있고, 그 가운데 각 단어의 의미 관계가 상반적이며 의미하는 부분이 조금도 접촉되지 않는 한 쌍을 반의어 조건으로 전제하여 추출한 결과, 반의어 589쌍이 발견되었다. 추출 과정에서, 반의어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 군이 쌍이 아닌 셋 이상일 경우 각각 반의어 쌍으로 묶었다.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적 관계의 대립으로, <표 8>과 같이 [과거-현재], [현재-미래], [과거-미래]와 같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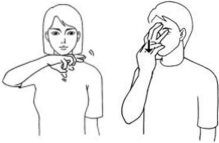


<표 8> 한국수어 반의어 군에서의 반의어 쌍 예시 1

순번	한국수어		한국어	
1			과거	현재
2			현재	미래
3			과거	미래

또는 한국수어 동형다의어(同形多義語)의 경우에도 각각 반의어 쌍으로 묶었다. 예를 들면 [충분]은 흡족하다는 감정의 정도를 의미하는 ‘만족하다’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양의 정도를 의미하는 ‘충분하다’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한국

수어일지라도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경우에는 <표 9>와 같이 [만족-불만족]과 [충분-부족]으로 구분하였다.

<표 9> 한국수어 반의어 군에서의 반의어 쌍 예시 2

순번	한국수어		한국어	
1			만족	불만족
2			충분	부족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반의어 조건인 동질성과 이질성에 부합하는 본 연구의 모든 반의어 쌍은 동일 언어사회 안에서 공인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농사회의 구성원인 농인 남녀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5명에게는 반의어 쌍의 앞 단어를, 또 다른 5명에게는 뒤 단어를 한국수어로 묻고 대답을 받는 형식으로 교차하여 실험하였다. 반의어 쌍으로써의 공인된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수어 혹은 실제수어의 구분 없이 의미 관계 일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반의어 589쌍에 대한 실험 결과는 평균 96.59%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표 10>과 같다.

<표 10> 한국수어 반의어 쌍 실험 결과

순번	대상	질문	개수	응답 개수	백분율(%)
1	M1	반의어 앞 단어	589	561	95.2
2	M2	반의어 앞 단어	589	570	96.7
3	M3	반의어 앞 단어	589	550	93.3
4	W1	반의어 앞 단어	589	581	98.6
5	W2	반의어 앞 단어	589	579	98.3
6	W3	반의어 뒷 단어	589	578	98.1
7	W4	반의어 뒷 단어	589	587	99.7
8	W5	반의어 뒷 단어	589	545	92.5
9	M4	반의어 뒷 단어	589	585	99.3
10	M5	반의어 뒷 단어	589	555	94.2

4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3호)

한국수어 반의어 쌍 추출 후 객관성 조사를 통해, 반의어 589쌍은 ‘실제수어-실제수어’, ‘실제수어-사전수어’, ‘사전수어-사전수어’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국수어 사전에 수록된 단어들 중 농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실제수어’로, 농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은 ‘사전수어’로 구분하였다. 또한 한국수어사전의 단어 중, 다른 한 쪽의 단어가 수록되지 않아 반의어 쌍을 이루지 못하는 단어가 452개 발견되었고, 이를 ‘실제수어’와 ‘사전수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형태에 대한 연구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제 한국수어 사용 빈도

구분		개수(쌍)	합계(쌍)	
쌍을 이루는 경우	실제수어-실제수어	334	589	1,014
	실제수어-사전수어	190		
	사전수어-사전수어	65		
한 쪽이 없는 경우	실제수어-미수록	268	452	
	사전수어-미수록	184		

두 개의 단어가 한국수어사전에 모두 존재하는 반의어 589쌍을 대상으로, 실제수어 혹은 사전수어 구분 없이 한국수어사전에 표기된 수어 표현을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한국수어 반의어 쌍 형태소 분석

구분	개수(쌍)	합계(쌍)
1형태소-1형태소	279	589
1형태소-2형태소	68	
1형태소-3형태소	2	
2형태소-1형태소	32	
2형태소-2형태소	172	
2형태소-3형태소	15	
3형태소-1형태소	1	
3형태소-2형태소	10	
3형태소-3형태소	8	
3형태소-4형태소	1	
4형태소-4형태소	1	

한국수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27가지 분야를 참고하여 18가지 분야로 정리한 뒤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반의어 589쌍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분야별 출현 빈도

구분		개수	합계
생활	가족	23	78
	인사·대화	20	
	학교생활	14	
	회사생활	11	
	음식	6	
	교통	4	
범위	시간	22	64
	단위	19	
	방향	14	
	색깔	9	
전문	의료	15	43
	경제	12	
	법률	7	
	종교	4	
	정치	2	
	스포츠	2	
	정보통신	1	
기타	기타	404	404
합계(쌍)		589	589

반의어 589쌍을 대상으로 품사별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품사별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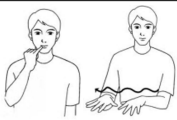




구분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부사	조사	합계
개수	413	104	64	5	2	1	589

2.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개념

대체적으로, 반의어는 서로 짝을 이루면서 반대 의미를 이룬다는 정의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반의어 쌍만큼이나 이들을 규정짓는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였다. 이에 김종도(1998), 염광호(1997), 임지룡(1989),

전수태(1992), 정인수(1985)의 연구에서 두 단어의 관계와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총 7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15>와 같다.

<표 15> 한국수어 반의어 쌍 개념

순번	개념	구분	반의어 쌍 예시		출현 빈도
1	모순적 개념	한국수어			225
		한국어	있다	없다	
2	반대적 개념	한국수어			135
		한국어	좋다	나쁘다	
3	단계적 개념	한국수어			96
		한국어	젊다	늙다	
4	상대적 개념	한국수어			83
		한국어	바다	육지	
5	상관적 개념	한국수어			39
		한국어	남편	아내	
6	역관계적 개념	한국수어			11
		한국어	사다	팔다	

1) 모순적 개념

대립되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적 존재가 없는 개념이다. 즉 전자의 부정이 곧 바로 반의어가 되는 경우로 [죽다-살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죽는 등 마는 등 혹은 살았는 등 마는 등 하는 중간 상태가 존재 할 수 없다. [성공-실패], [주관-객관] 등이 그러한 경우이며, 양립 할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에서 주로 나타났다.

2) 반대적 개념

대립되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적 존재가 있는 개념이다. 두 단어 사이에 여러 단계의 중간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적 의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적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면 [위-아래] 사이에는 중간이 있고, [상류-하류] 사이에는 중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늦다-빠르다], [길다-짧다], [작다-크다] 등의 무게나 길이 등의 단위에서도 나타났다.

3) 단계적 개념

두 단어의 척도가 양극에 위치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닌 개념이다. 또한 두 단어 사이에 여러 등급의 연속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중간적 존재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젊음-늙음]에서는 젊다는 것과 늙는다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덥다-춥다] 사이에는 조금 덜 더운 상태인 [따뜻하다]와 조금 덜 추운 상태인 [시원하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4) 상대적 개념

상호의존도가 작으며, 어느 하나가 없다고 하여 다른 하나가 반드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개념이다. 예를 들면 [하늘-땅]은 대립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없지만 사람들의 오래된 습관 또는 의식에서 보았을 때,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므로 반의어 쌍을 이룬다. 분야 구분 없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5) 상관적 개념

상호의존도가 크며, 어느 한 하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스승-제자], [남편-아내]는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서로 의존되고 있다. 따라서 상관적이며 상호적인 의존관계에 의해 반의어 쌍을 이룬다. 주로 가족 관계 혹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주로 나타났다.











6) 역관계적 개념

두 단어의 대립보다는 현상의 양면성을 보이는 관계의 개념이다. 어떤 행위자가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다-팔다]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 경우에 여기에는 반드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사회생활 분야에서 나타났다.

3.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와 동일한 언어적 특성이 있지만, 시각언어로서의 독자적으로 갖는 특성이 있다.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분석을 통해 음성언어의 반의어 쌍에서 발견되지 않은 5가지 실현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표 16>과 같다.









<표 16> 한국수어 반의어 쌍 실현 특성

순번	실현 특성	구분	반의어 쌍 예시		출현 횟수
1	별도	한국수어			417
		한국어	좋다	나쁘다	
2	가역	한국수어			101
		한국어	기억하다	잊다	
3	대칭	한국수어			28
		한국어	오른쪽	왼쪽	
4	뿌리치기	한국수어			7
		한국어	필요	불필요	
5	부정	한국수어			36
		한국어	죄	무죄	

1) 별도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수어 표현이 다른 경우이다. [뜨겁다-차갑다], [바쁘다-한가하다]처럼 모든 수어소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표 17>과 같이 [흡연-금연], [검손-거만]처럼 대립되는 한 가지 의미를 지칭하기 위하여 수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209쌍이 발견되었다.




<표 17>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별도

순번	별도	반의어 쌍 예시			
1	수어소 모두 불일치				
		답다	축다	개인	단체
2	수어소 일부 일치				
		흡연	금연	거만	검손

2) 가역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수어 표현에서 수동을 역으로 했을 때 대립적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수형과 수위, 수향은 유지한 채 오로지 수동의 전환만 이뤄지는 경우로 [기억하다-잊다]가 있으며, 이를 가역이라고 하였다. 또는 파생어나 복합어를 나타내는 2형태소 이상의 단어에서 하나의 형태소만 온전히 가역을 실현하는 경우로 [개회-폐회]가 있으며, 이를 부분 가역이라고 하였다. 반면 수위는 유지하되 수형이나 수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수동이 역으로 전환하면서 의미 대립이 있는 경우로 [지나다-버리다]가 있었으며, 이를 유사 가역이라고 하였다. 가역과 관련한 한국수어 반의어 쌍은 <표 18>과 같다.

<표 18>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가역

순번	가역	반의어 쌍 예시	
1	가역		
		기억하다	있다
2	부분 가역		
		개회	폐회
3	유사 가역		
		가지다	버리다

능동과 수동을 대립으로 보아 반의어 쌍이 실현되는 경우, 가역과 유사 가역에서 반의어이면서 일치동사이기도 한 경우가 나타났으며 <표 19>와 같다.





<표 19>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가역-일치동사

순번	가역	반의어 쌍 예시	
1	가역		
		쫓아내다	쫓겨나다
2	유사 가역		
		물려가다	물려오다

3) 대칭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수어 표현에서 X축 혹은 Y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decalcomanie)처럼 접었다 핀 것과 같은 경우이다. 가역성은 수동에 초점을 둔 특성이라면, 대칭은 수위에 초점을 두었다. <표 20>과 같이 [왼쪽-오른쪽], [법-불법]처럼 실현되는 경우이다.

<표 20>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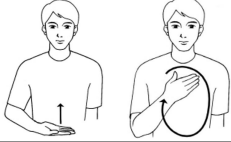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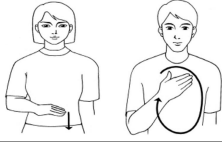


순번	대칭	반의어 쌍 예시	
1	좌-우		
		왼쪽	오른쪽
2	위-아래		
		법	불법

또는 파생어나 복합어를 나타내는 2형태소 이상의 단어에서 하나의 형태소만 온전히 대칭을 실현하는 경우로 [상체-하체]가 있으며, 이를 부분 대칭이라고 하였다. 반면 수위는 유지하되 수형이나 수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수동이 대칭을 실현하면서 의미 대립이 있는 경우로 [지난주-다음주]가 있었으며, 이를 유사 대칭이라고 하였다. 대칭을 세분화하여 구분한 한국수어 반의어 쌍은 <표 21>과 같다.

<표 21>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대칭 구분

순번	가역	반의어 쌍 예시	
1	대칭		
		이전	이후

<표 21>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대칭 구분(계속)

순번	가역	반의어 쌍 예시	
2	부분 대칭		
		상체	하체
3	유사 대칭		
		지난주	다음주

4) 뿌리치기

주로 모순적 개념에서 나타난 실현 특성으로, 반의어 쌍 중 앞 단어의 수어를 뿌리침으로써 의미 대립을 보였다. 뿌리침에도 앞 단어 수동의 역방향으로 하여 뿌리치는 것과 순방향으로 뿌리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립의 의미에는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면 [경험-무경험], [행복-불행]과 같은 경우이며 <표 22>와 같다.

<표 22>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뿌리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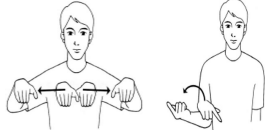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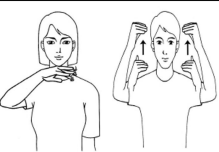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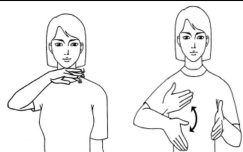
순번	뿌리치기	반의어 쌍 예시	
1	순방향		
		경험	무경험
2	역방향		
		행복	불행

5) 부정

긍정과 부정에 의한 모순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부가 흔히 단어의 앞에 붙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현실적과 비현실’, ‘가능과 불가능’, ‘감각과 무감각’ 등은 ‘비(非), 불(不), 무(無)’로 인하여 의

미가 대립하며, 이들은 반의어 쌍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순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데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가 결합을 이루게 되면 반의어 쌍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무감각 대신 ‘감각이 없다’, 어둡다 대신 ‘밝지 못하다’나 ‘아니 밝다’ 혹은 ‘개의치 않다’나 ‘게으름 피우지 마라’ 등과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반의적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한국어에서 비, 불, 무 등으로 반의 관계를 이룬다면, 한국수어는 [아직], [없다], [아니다] 등 6가지로 반의어 쌍을 이루며 <표 23>과 같다.

<표 23>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부정

순번	부정	반의어 쌍 예시	
1			
	없다	죄	무죄
2			
	비다	의미	무의미
3			
	아니다	평등	불평등
4			
	불가능	멀망	불멸
5			
	못	믿음	불신
6			
	아직	성년	미성년

IV. 논의 및 제언

1.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형태와 분야, 품사별 빈도

반의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뒤 한국수어사전의 12,547개의 어휘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어 반의어 589쌍을 추출할 수 있었다. 분석에 앞서 추출한 반의어 쌍에 대한 객관적인 공인이 필요하여, 농인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96.59%의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같은 언어권 내에서 공존성과 동위성을 의미하는 동질성을 보여준 것으로, 한국수어 반의어 쌍으로써의 타당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5.41%의 불일치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이유로는, 실험대상자인 농인이 실험의 참여 경험이 많지 않거나 반의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용 빈도가 낮은 수어 단어의 경우는 신속히 떠올리지 못하였을 수 있다. 또는 반의어 쌍의 대립 관점이 달라 사전 이외의 단어로 답한 경우도 있었다.

반의어 쌍에 대한 형태소 분석에서는 총 11가지가 발견되었다. 1형태소:1형태소 유형이 279쌍으로 가장 많았고, 2형태소:2형태소가 172쌍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숫자의 형태소 쌍에서 101쌍이 가역, 28쌍이 대칭, 7쌍이 뿌리치기의 특성을 보였고, 실현 특성 중 별도에서 수위를 유지하는 형태가 209쌍이 있었다. 이는 한국수어의 반의어는 가역, 대칭, 뿌리치기와 같이 주로 수동의 변화로 의미 대립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고, 두 단어가 다른 형태로 반의적 관계를 보인다 하여도 [흡연-금연]과 같이 동위성을 표현하기 위해 수위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분야별 분석에서는 일반>범위>사회>전문 순이었으며, 품사별 분석에서는 명사>동사>형용사>대명사>부사>조사 순이었다. 그러나 분야별 혹은 품사별 분석 결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품사별 분석을 예를 들면, '명랑-우울'로 분석한 경우 명사로 분류되지만, '명랑하다-우울하다'로 분석한 경우는 형용사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수어에서는 동일 의미 단어를 품사에 따라 표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품사별 분석이 유용적일 수 있다.

2.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개념

반의어 쌍은 공존쌍과 동위성을 의미하는 동질성을 갖되, 반드시 한 가지 의미 자질에서 배타성과 상반성을 의미하는 이질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때 이질성의 특성에 따라 반의어 쌍의 개념이 6가지로 분석되었다. 모순적 개념이 225쌍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반대적>단계적>상대적>상관적>역관계적 개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은 대립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의어 쌍에서만 아니라, 사람들의 오래된 습관 또는 의식을 통해서도 반의어가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단어의 척도가 양극에 위치하고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중간적 의미가 존재하나 명확히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의어가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상관적 개념과 역관계적 개념과 같이 주로 가족 및 친족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반의어가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3.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별도>가역>부정>대칭>뿌리치기 순으로 5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이루는 두 개의 단어가 각각 다를지라도, [흡연-금연]과 같이 동위성을 표현하기 위해 수위를 유지하고 수형이나 수동에 변형을 준 것이 209쌍이 발견된 것은 음성언어에서의 반의어 쌍 실현 특성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동을 역으로 하여 의미 대립을 실현하는 가역, 수위를 대칭하거나 앞 단어의 수어 표현의 끝을 뿌리치며 반의적 관계를 실현하는 것은 시각언어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인 별도, 가역, 대칭, 대칭, 뿌리치기는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2011)에서 미국수어 반의어 쌍의 실현 특성을 소개한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실현 특성 중 부정에서는 한국수어 반의어 쌍에서 부정형태소가 [없다], [비다], [아니다], [불가능], [못], [아직]으로 총 6가지가 발견되었고, 한국어와는 다르게 앞 형태소와 결합하여 뒤에서 표현되었다. 부정형태소가 붙은 반의어는 주로 모순적 개념에서 나타났다. 한국어 반의어 쌍인 ‘관심-무관심’을 살펴보면, ‘관심’은 무표항에 속하며 ‘무-’가 붙은 반의어는 유표항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수어 반의어 쌍에서도 부정형태소를 뒤에 결합한 형태의 반의어를 유표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4.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단어의 양을 더욱 확보한 한국수어 반의어 쌍의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제 수어’와 ‘사전 수어’를 구분한 것은 한국수어사전에 수록된 표현이 농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상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최대한 실제로 농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수어를 대상으로한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 한국수어 반의어 쌍 연구 분석을 통하여 반의어 실현 시, 양의 많고 적음이나 높고 가늠, 상태나 감정의

좋고 나쁨 등에 따라 비수지의 변화가 공통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수형을 중심으로 한 반의어 쌍 분석이었다면, 비수지를 중심으로 한 반의어 쌍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반의어는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과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학습 수단이다. 반의어 학습을 통해 단순히 어휘량을 늘리는 데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 역으로 생각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등의 어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수어 어휘 교육에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수어 반의어 쌍을 기초 자료로 하여 활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도 (1998). 아랍어의 반의어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No. 2, 7-22.
- 류은중 (1990). 반의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990(1), 11-15.
- 문창덕 (1990). 반의어를 어떻게 가려잡을 것인가. **중국조선어문**, 1990(3), 61-61.
- 손남익 (2006).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한국어 의미학**, 2006(19), 65-83.
- 송지현 (2014). 한중 반의어 대조와 반의어 교육적 활용. **중국어문학논집**, (87), 213-235.
- 신희삼 (2014). 반의어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교육 방안. **언어학**, 22(4), 297-316.
- 원성옥 (2013). **수화**.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병천 (2005). 국내 수화 연구의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19-36.
- 이광호 (2009). 코퍼스를 활용한 반의어의 총체적 목록 확보 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6, 281-318.
- 이민우 (2012).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제49호**, 219-242.
- 임지룡 (1989).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 임채훈 (2009). 반의관계와 문장의미 형성. **한국어 의미학**, 30, 231-256.
- 전수태 (1992). 반의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 **한남어문학**, 20. 한남대학교 국문과.
- 전수태 (1995). 부정 반의어 연구. **고대 어문논집**, 제31집.
- 정영복 (2011). 국어 교과서의 반의어 내용 구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48, 173-196.
- 정인수 (1985). 국어 반의어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조은혜, 최경숙 (2008). 반의어와 유의어의 생성이 초등학생의 기억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1(2), 1-14.
- 조철현 (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유형 조사 연구**. 2002년도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조현용 (2010).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증식, 장태원 (2010). 한중 부정식 반의어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53, 239-258.

- Clayton Valli, Ceil Lucas (2011).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Gallaudet University Press.
- Anderson, D., & Reilly, J. (2002).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Normative data for American Sign Languag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7, 83–119.
- Charles, Reed, and Derryberry (1994). *Conceptual and associative processing of antonymy and synonymy*. *Applied Psycholinguistics*, 15, 331–356.
- Novogrodsky, R., Caldwell-Harris, C. Fish, S., & Hoffmeister, R. J. (2014). *The development of antonym knowledge in American Sign Language and its relationship to reading comprehension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64, 749–770.

웹사이트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A Study on Antonym of Korean Sign Language

Koh, Inkyung · Lee, Sookki · Cho, Heekyung · Hyun, Youngok ·

Yoon, Byeongcheon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ntonym of Korean Sign Language(KSL). All KSL words from KSL Dictionary were 12,547, where 589 antonym pairs were found. The result of the morphological analysis, peer-to-peer morpheme was used the most. KSL antonym pairs have 6 different types of concepts such as contradiction, opposite, phased, relative, correlative and inverse relation. KSL antonym pairs from this research, 5 kinds of characteristics were found, such as separately, reversibility, symmetry, shake off and negative morpheme. Last, more research is recommended to find more antonym pairs in actual KSL words of Korean Deaf people within the words in KSL dictionary.

Key Words : antonym pairs, antonymy, reversibility, shake off, negative morpheme

논문 접수: 2016. 06. 07 심사 시작: 2016. 06. 10 게재 확정: 2016. 07. 01